

## 보호자 여러분께

### 다문화 공생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 「본명(루트 : 조상과 이어지는 호적 이름)」을 부르고 · 자칭하기 ~

오사카시 교육위원회에서는 다양한 문화를 서로 이해하며 다 함께 더불어 사는 다문화 공생 사회를 목표로, 다문화 공생 사회를 이루기 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아동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가치관과 문화를 가진 아이들끼리 서로 함께 배워 나가는 다문화 공생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화의 진전과 더불어 오사카 시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에는 한국·조선을 비롯하여, 중국, 필리핀, 베트남, 페루, 브라질 등 50 개 국 이상의 나라와 지역에 루트가 있는 아이들이 함께 통원 · 통학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명을 부르고 · 자칭」 할 수 있는 학교 내의 환경 만들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개인을 상징하는 것이며, 본명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한편, 신규로 일본에 온 아동, 국제결혼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 여러 가지 경위로 인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일본 국적을 취득한 아동 등 아동들의 민족적 배경은 다양합니다. 아동들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하여, 모국어 · 모국 문화의 보유를 위하여 「루트 : 조상의 뿌리와 이어지는」 호적상 이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사카시 교육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본명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아이덴티티(정체성)의 확립과 좋은 만남, 서로의 다름을 오히려 풍요로운 만남으로 여기는 아동 육성에 힘쓰고 동시에 본명을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편견이나 차별을 없애기 위한 지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보호자 여러분께서는 이상의 취지에 대하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오사카시 교육위원회